

가입자 이탈에 정부 제재까지… SKT, 유심해킹 ‘후폭풍’

이달 유심 교체작업 마무리 목표
고객 49.6만명, KT·LG U+ 이동
통신비 완화·단통법 폐지 ‘부담’
내부적으로 사태수습·신뢰회복 나서

5월 이동통신 시장의 번호이동 규모가 100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알려져, SK텔레콤의 유심(USIM) 해킹 피해 후폭풍이 예상보다 커지고 있는 모습이다. 특히 해킹 피해자인 SK텔레콤은 가입자 이탈에 정부 제재란 ‘이중고’까지 겪고 있어 하반기 사업 전략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단, SK텔레콤은 이달 중 유심(USIM) 교체 작업을 마무리한 뒤, 신규 가입 유치 재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 유심 교체는 ‘예약자’를 기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미예약자의 교체까지 포함하면 전체 작업 완료까지는 더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9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누적 유심 교체 고객 수는 663만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예약 고객



지난 4월 28일 서울 시내 한 SKT 대리점을 찾은 시민들이 유심 교체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손진영 기자 son@

(955만명)의 약 69.4%에 해당한다. 잔여 예약 고객은 292만명으로, 지난 2일 334만명에서 꾸준히 줄어들고 있다. SK텔레콤은 이번 주 내 교체율 70%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유심 해킹 사태 이후 신규 가입 유치가 중단된 SK텔레콤에게는 가입자 방어와 유치 모두 절박한 상황이다. 지난 달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번호이동 방어에 제약을 받은 가운데,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에 따르면 5월 한 달간 전

체 번호이동은 93만3509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3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SK텔레콤에서 KT와 LG유플러스로 이동한 이용자는 49만6009명에 달한다. 이 중 27만4303명은 KT로, 22만1706명은 LG유플러스를 선택했다. 업계에선 SK텔레콤의 유심 해킹 사태가 번호이동 급증의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보고 있다.

여기에 정부 정책도 통신업계 수익성에 추가 부담을 안길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생활비 절감 대책으로 통신비 완화를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 전 국민 데이터 안심요금제(QoS) 도입, 잔여 데이터 이월 및 선물 기능 강화, 병사 요금 할인 확대(20→50%), 통신비 세액공제 신설 등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정책효과가 빠르게 나타나는 통신비 인하 정책을 즉각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7월 폐지 예정인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도 SK텔레콤에는 부담 요소다. 단통법 폐지 이후 알뜰폰과 자급제 단말기 시장이 확대되고, 통신3사 간 보조금 경쟁이 심화될 경우 이들의 마케팅 비용도 증가할 수밖에 없다. 회사 수익성 측면에서 적신호인 셈이다.

임봉호 SK텔레콤 이동통신(MNO) 사업부장은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 정부와 소통하고 있다”고 말했다.

SK텔레콤은 내부적으로도 유심 해킹 사태 수습과 신뢰 회복에 고삐를 당기고 있다. 특히 이달 중 열릴 SK그룹 연례 회의는 사태 이후 처음 열리는 전사 전략 행사로, 경영진들이 고객 신뢰 회복과 보안 강화에 대한 메시지를 공

유할 가능성이 크다.

SK그룹은 사건 직후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정보보호혁신특별위원회’를 신설하며 그룹 전반의 보안 체계 재정비에 나선 상태다. 해당 위원회는 보안 리스크의 사전 감지·차단을 비롯해 정보보호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며, SK수펙스추구협의회 최창원 의장이 직접 위원회를 이끌고 있다.

다만 유심정보 해킹 사태에 따른 민관합동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고 유심교체를 예약하지 않은 가입자들의 교체까지 고려한다면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재개하기까지 시간이 더 걸릴 수도 있다. 민관 합동조사 결과 발표일은 현재 미정이지만 이달 말 나올 가능성이 높다.

만약 SK텔레콤이 회사 귀책 여부에 따라 위약금을 면제하도록 정한 바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될 경우 최대 영업정지 3개월 처분까지 나올 수 있다. 정부는 SK텔레콤의 귀책 사유가 명백할 경우 영업정지와 함께 번호이동시 위약금 면제 등 소비자 보호 조치까지 적극 검토 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서현 기자 seoh@metroseoul.co.kr

LG U+, 갤럭시 S21 시리즈 이상에 ‘익시오’ 탑재

Z폴드·폴립, 보급형 모델서도 이용
앱스토어에서 검색한 뒤 다운로드
안티 딥 보이스 기능, 익시오 제공

LG유플러스는 인공지능(AI) 통화 에이전트 서비스 ‘익시오(IXIO)’를 삼성 갤럭시 S21 시리즈 이상 제품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했다고 9일 밝혔다.

‘익시오’는 실시간 보이스피싱 탐지, 보이스 전화, 전화 대신 받기, 통화 녹음 및 요약 등의 기능을 온디바이스(On-device) 환경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다.

이번 업데이트를 통해 삼성 갤럭시 S21, S22, S23, S24 시리즈와 갤럭시 Z 폴드3, 폴드4, 폴드·폴립 5, 폴드·폴립6



익시오 서비스를 소개하는 LG유플러스 모델의 모습. /LG유플러스

에서 익시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A23, A25 5G, A35, A36과 갤럭시 버디2, 버디4에도 적용된다.

LG유플러스 고객은 앱스토어에서 익시오를 검색한 뒤 내려받을 수 있다. 자급제 단말기를 구매하고 LG유플러스 요금제에 가입해 통신 서비스를 이용 중인 고객이나 LG유플러스로 번호이동을 한 고객도 익시오를 이용할 수 있다.

LG유플러스는 AI가 만든 가짜 목소리까지 탐지하는 ‘안티 딥 보이스’ 기능을 익시오에 탑재할 예정이다. 지난 3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5’를 통해 공개한 이 기능은 딥페이크로 제작된 목소리의 특성을 AI가 탐지해 고객에게 알림을 제공한다. 지인의 목소리를 딥페이크로 변조해 보이스피싱에 악용하는 사례를 차단할 수 있다고 LG유플러스는 설명했다.

/김서현 기자

코오롱베니트, 대웅그룹 연결회계 고도화

‘베니트 시그마’ 구축

코오롱베니트는 최근 대웅그룹을 대상으로 자체 연결회계 솔루션 ‘베니트 시그마’ 구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대웅그룹의 연결결산 체계를 디지털 기반으로 고도화하고, 연결 담당자의 업무 효율성과 내부 통제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진행됐다.

이 프로젝트의 핵심은 반복적 결산 업무를 자동화한 것이라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코오롱베니트 관계자는 “수십 개의 계열사를 보유한 대웅그룹은 연결결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력·조정·검토 업무 부담이 컸다”며 “새롭게 구축된 베니트시그마를 통해서 각 계열

사는 직접 데이터를 입력하고 관리하는 업무에 집중하고, 연결 결산 담당자는 데이터를 검토하고 통제하는 업무에 전념할 수 있는 구조로 업무 프로세스를 개편했다”고 설명했다.

대웅그룹과 코오롱베니트는 연결회계 담당자가 개별 관리하던 다양한 작성 및 조정 자료를 신규 시스템에 통합했다. 새로운 시스템에는 다트 전자공시용 DSD 파일 생성·비교 기능이 포함돼 자료 변경 사항 반영 속도와 정확성을 높일 수 있다.

이 시스템에 내장된 데이터 검증 로직은 휴먼 에러를 효과적으로 방지한다. 또 내부 회계 관리 제도 대응을 위한 통제 기능이 탑재돼 시스템 산출 문서를 ITGC(정보기술 일반통제) 증빙 자료로도 활용할 수 있다. /김현정 기자 hjk1@

구글 클라우드 클라우드 WAN 활용 LG그룹 계열사 AX 가속

구글 클라우드는 LG CNS와 ‘클라우드 WAN’을 활용해 LG 그룹 계열사 및 LG CNS 엔터프라이즈 고객의 AI(인공지능) 전환을 가속화하고 있다고 9일 밝혔다.

클라우드 WAN은 안전하고 안정적인 관리형의 엔터프라이즈 네트워크 솔루션이다. 기업은 클라우드 WAN을 활용해 빠른 성능을 구현할 수 있다.

클라우드 WAN은 AI 애플리케이션에 필요한 효율적인 통신과 데이터 접근을 지원해 고객 서비스를 향상하고, 클라우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 간 원활한 통합으로 AI 혁신 기반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강조했다.

/김현정 기자

KT나스미디어, 유해콘텐츠 자동차단 서비스

‘세이프 컨텍스트 비디오’ 출시

KT의 자회사KT나스미디어는 유튜브 광고 송출 시 유해 콘텐츠를 자동 차단하는 서비스 ‘세이프 컨텍스트 비디오(SCV)’를 출시했다고 9일 밝혔다.

SCV는 멀티모달 AI 모델을 기반으로 유튜브 영상의 맥락을 실시간 분석해 유해 콘텐츠 여부를 판단하고, 판별된 콘텐츠에 대해 광고 송출을 중단하는 방식이다. 구글 애즈 및 유튜브 데이터 API와 연동되며, 하루 최대 1000만건 이상의 영상 메타 정보를 분석할 수 있다. AI 모델의 정확도는 90% 이상으로 알려졌다.

차단 기준은 KT나스미디어가 자체 마련했으며, 선정성·폭력성·정치·종교



KT나스미디어 데이터사이언스팀 연구원들이 ‘세이프 컨텍스트 비디오’의 유해 콘텐츠 분석 및 차단 결과를 보는 모습. /KT

편향 등 유튜브의 기본 제한 항목 외에 ‘라디오like’(음성 위주 콘텐츠), ‘해외’(한글 미포함 영상) 등 총 8개 카테고리로 구성된다.

/김서현 기자

AI 기술·데이터로 전북도 도시문제 해결

카카오엔터프라이즈, 전국 최초
전북에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구축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AI(인공지능) 기술과 데이터를 활용해 도시 문제를 진단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전북자치도에 전국 최초로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를 구축했다고 9일 밝혔다.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는 도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하고 관리해 데이터 기반의 도시 운영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플랫폼이다.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클라우드 네이티브를 기반으로 ▲데이터허브 필수 모듈 3종(데이터 코어 모듈, API 게이트웨이 모듈, 보안 모듈) ▲도시 데이터

를 수집하는 오픈 모듈 1종 ▲실제 데이터를 활용해 AI로 학습 모델을 생성하고 검증하는 기능을 구현하는 분석 모듈 1종을 구성했다.

아울러 카카오엔터프라이즈는 도시 재난 예방 서비스, 안전시설물 관리서비스 등 2종의 시범 서비스도 구현했다.

김형우 전북자치도 건설교통국장은 “전북특별자치도는 AI, 자율주행, 스마트팜과 같은 기술에 활용되는 중요한 데이터 자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네이티브 기반의 스마트시티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했다”며 “클라우드 네이티브 전환 사업의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이 스마트도시 데이터허브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